

신사수2길 | 제주시 도두2동 1657 ~ 제주시 도두2동 1639-11(약 0.1km)

도리로/도공로/오래물길 | 오래물

도두동과 이호동을 연결하는 길인 **도리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면 도두마을이 있다. 도두마을의 ‘도두’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부터 ‘섬머리마을’이라고 했던 것에서 도두(島頭)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지금은 ‘도(道)’자를 써서 도두(道頭)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도두마을 남쪽으로는 제주공항과 맞닿아 있다.



오래물

도공로는 도두항에서 공항 바로 옆을 지나 일주서로까지 이어진다. **도공로**와 이어진 **오래물길**은 용천수인 오래물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도두마을은 ‘오래물’, ‘생이물’, ‘막은물’ 등 마을 곳곳에 용천수들이 솟아났다. 길가 아무 곳이나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고 할 정도였다. 솟아나는 물의 양도 풍부하고, 질도 좋아 마을 사람들의 생활용수로 요긴하게 쓰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용천수가 오래물이다. 오방(吾方)에서 솟는다고 해서 오래물이라 불렀다고 하고, 제주말로 올레라고 부르는 큰 길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 앞에 있는 샘물이어서 오래물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은 집안에서 물을 쉽게 사용하지만 상·하수도가 정비되기 이전만 해도 직접 물을 길어 와야 했다. 그래서 제주의 어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 그날 사용할 물을 길어 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경조사가 있는 날이면 음식 준비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을 한 집에서 모두 준비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한 집마다 한 허벅씩 물을 길어다 주며 부조를 대신했다. 십시일반으로 모인 물은 큰 일을 무사히 치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물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정을 나누었다.

현재도 마을 사람들은 오래물을 자주 찾는다. 물 주변을 정비하고 남탕과 여탕을 따로 구분해 놓아서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오래물을 즐기기 위해 인근의 마을 사람들도 많이 이용한다.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오래물축제를 열어 다양한 행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해안로 | 해안도로

제주시에서 서쪽 해안가를 지나는 길이라는 뜻의 **서해안로**는 이호해수욕장에서 용두암까지 6km 넘게 이어진다.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이 길은 바다의 경치를 즐길 수 있어 사람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선호하는 곳이다. 길 중간에 쉼터가 마련되어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바다를 감상하는 낭만도 느낄 수 있다. 서해안로는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아 시내에 머무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바닷가에 조명이 설치되어 밤바다를 즐기며 산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항과도 가까워서 비행기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떠나는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가기도 한다.

도두항길 | 도두항

서해안로에서 갈라지는 **도두항길**은 도두항을 향해 나 있는 길이라는 의미다. 도두항은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매립을 하고 만든 항구이다. 그리 크지 않은 항이지만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곳이고, 요트도 탈 수 있어 관광객들이 종종 찾는다. 도두항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빨간등대와 하얀등대는 마치 서로를 그리워하는 연인처럼 보인다. 도두항의 서쪽길에는 ‘도두 추억애풀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옛날 아이들이 즐기던 굴렁쇠 굴리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팽이치기, 딱지치기 등을 하는 모습을 묘사한 조각 작품들이 방파제를 따라 전시되어 있다.

도두봉2길 | 도두봉



도두봉

도두봉2길은 인근에 있는 도두봉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바닷가에 우뚝 솟아 있는 도두봉은 바다를 감시하는데 최적의 장소였다. 그래서 도두봉 정상에는 도원봉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봉수는 서쪽으로는 수산봉수, 동쪽으로는 사라봉수와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밖에도 도두봉에는 오름허릿당이라고 불리는 도두리의 본향당이 있다. 이 당은 한라산에서 태어난 산신과 도두봉에 있

던 송씨할망을 모셨다. 마을 사람들은 가족의 무사안녕을 빌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당을 찾았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과거의 기억이 되어 버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던 힐링의 장소였다. 도두봉은 석양의 모습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해서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서쪽 바다의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감상할 수 있다.

신사수2길 | 사수마을

신사수2길은 몰래몰이라고도 불렸던 사수마을과 관련된 곳이다. 사수라는 마을 이름은 ‘물이 있는 곳에 모래가 있다’는 뜻으로 사수(沙水)라고 했다고 하고, ‘모래나 자갈이 있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이라 하여 몰래몰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물 주변으로 모여 살던 사수마을 사람들은 1940년대에 마을의 웃동네에 비행장을 만들면서 조상 대대로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이때 옮겨간 곳이 지금의 신사수 마을이다. 이후 여러 번에 걸친 비행장의 확장 공사로 몰래몰이라 불리던 마을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주변 마을로 뿔뿔히 흩어져 정착하게 되었다. 서해안로를 따라가다 보면 ‘몰래몰향우회창립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사라진 몰래몰마을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옛 마을을 기억하며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